

“황금송어 잡고 추억도 건지고”

무안겨울송어축제 내년 1월18-19일 해제면 일원에서 개최
농수특산물 판매·송어잡기·구이존 등 즐길거리 다채

무안군이 겨울철 별미인 송어를 주제로 한 겨울 송어축제로 올 겨울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5년 1월18일부터 19일까지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2025 무안겨울송어축제’를 개최한다.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송어 튀김! 희망 날고!’라는 주제로 무안 겨울 송어의 참맛을 알리고 곱창돌김, 갈태, 새우, 황토고구마 등 지역특산물 홍보

와 황토갯벌랜드, 도리포 해상 숲길, 도리포 일출·일몰, 칠산대교 등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기간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지역 상생 이벤트, 송어를 비롯한 지역 농수산물(고구마, 김, 굴, 새우 등)을 활용한 구이존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5개 분야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황금 송어를 잡아라’, 원데이클래스 ‘송어 초



지난해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린 무안겨울송어축제에서 아이들이 ‘황금송어를 잡아라’ 체험을 즐기며 열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밥 만들기’는 매일 4회 운영한다. 송어 잡기 체험은 예년과 달리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송어 잡기에서 매회 가장 큰 송어를 잡은 어린이에게는 황금 1등을 수여한다.

무안송어는 무안의 청정 갯벌을 먹은 까닭에 ‘빨만 먹어도 달디달다’고 할 정도로 송어회 맛이 일품이다.

무안송어는 과거 임금에게 바치는 주요 진상품 중 하나로, 그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옛 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무안읍지 등

에도 무안의 대표 토산품으로 기록돼 있어 무안송어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특산물임을 보여준다.

하얀 속살에 붉은색을 띤 송어회는 매년 1월에 가장 쫄쫄둑둑하고 찰지면 서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재해에는 무안을 방문해 겨울철 별미이자 건강한 먹거리인 송어로 건강과 맛을 즐기고, 무안 청정 갯벌이 어우러진 겨울 바다와 서해안의 황금빛 노을을 마음껏 만끽해 달라”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에 ‘전남 1호’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 들어선다

62억 투입·내년 11월 준공
지상 4층·30실 규모 추진

영암군에 전남 1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가 들어선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영암읍 공영주차장 옆 부지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안전시공 기원 착공식’을 열었다.

지난 2022년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남 1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가 될 이 건물은 농촌 지역의 간호복지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 확보, 청년인구 유입 등을 취지로 건립된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영암읍 동무리 119번지 1천158㎡ 부지에 사업비 62억이 투자돼 연면적 1천561㎡, 지상 4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 공영주차장 옆 부지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안전시공 기원 착공식’을 열었다.

〈영암군 제공〉

층, 30실 규모의 거주 공간으로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기숙사에는 입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줄 체력단련실, 세탁실, 휴게실 등도 조성된다.

영암 의료기관,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내년 12월 이후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남 1호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으로 간호·복지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영암군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 명사십리서 ‘을사년 해맞이’ 소망 기원

‘2025 완도 방문의 해’ 기념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등 행사

완도군은 29일 “다가오는 2025년 1월 1일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 ‘완도리나!’(명사십리길 85-207)에서 ‘을사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해맞이 행사는 ‘2025년 완도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군민의 무사안녕과 소망이 이뤄지길 함께 기원하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오전 6시30분 열두군교 풍물길놀이를 시작으로 팽폐라, 국악 등이 어우러진 새해 희망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어 5명의 군민이 대북을 5번씩 치는 ‘희망 신년 타고’와 함께 완도군의 신년 화두를 대형 붓으로 적는 붓글씨 퍼포먼스도 이뤄진다.

일출에 맞춰 ‘방문의 해’ 애드벌룬을 띄울 예정이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신지면 사회단체에서는 군민과 방문객을 위해 핫팩과 완도 특산물로 만든 떡국,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완도=윤보현 기자

비금도 주민, 신안서 6번째 ‘햇빛연금’

1인당 8-16만원 차등 지급

신안군은 29일 “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신안군에서 6번째로 햇빛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비금도에서 첫 햇빛연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비금도 주민들은 신안군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올해 10월 완공된 200MW급 태양광발전사업(비금주민태양광발전㈜)의 수익금 중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 배당금을 12월부터 비금도 주민 3천165명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액은 1인당 16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금액은 1004집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급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은 곳은 우산마을의 한 가구에서 분기별로 140만원(연 560만원)을 받게 됐다.

김종오 비금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이사장은 “비금도 주민의 협동조합 회원 가입률이 88%로, 이는 첫 햇빛연금을 지급한 다른 섬들보다 가장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며 “햇빛연금 정책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나주시, 영산강수계기금사업 ‘최우수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4년 연속 우수율 1위 이어 2관왕

나주시는 29일 “지난 27일 202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수도 우수율 부문 4년 연속도 내 1위를 달성한 데 이은 성과로 나주시는 상수도 행정의 우수한 역량을 연이어 입증했다.

〈사진〉

이번 성과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수계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적정성, 예산 집행

효율성, 사업 관리 실태 등을 중점 평가한다.

나주시는 영산강유역 수질 보전과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목표로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9개 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수관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영산강유역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상수도 우수율 4년 연속 도내 1위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기초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영광 ‘신뢰·상생’ 단체협약 체결

郡-영공노, 정기인사 피드백 제도 도입

영광군과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단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식은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영공노)에서 지난달 5일 영광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양측이 약 한 달간의 합의를 원활하게 마치고 최종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이번 단체협약은 ▲정기인사에 대한 피드백 제도 도입 ▲신분 구획의 효율

성 도모 ▲조합원 장기재직유가 확대 방안 강구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 기한 확대 ▲본청 숙직근무 전담 인력 배치 방안 강구 ▲조합원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난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보충 협약의 성격을 가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언제나 한마음 한 뜻으로 영광 군정에 협조해 주는 영공노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며, 공직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펼치며 영



광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4년 단체교섭에 성심을 다해 응했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관계가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지며, 영광군과 영공노가 풍요로운 영광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협력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범기 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되도록 영공노가 교섭 요구한 사항에 대해 큰 이견 없이 합의해 준 영광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공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장미선 하당보건지소장은 “박일중 내과와 박석홍 가정의학과위원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 덕분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정신건강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